

Top 7 철강수출국의 제품 MIX 변화와 시사점

-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

추지미 책임연구원, 동향분석센터 (jmchu@posri.re.kr)

목차

1. 세계 철강 교역품목 전환
2. Top 7 철강수출국, 주력 수출품목 변화
3. 주요국 철강 제품별 비교우위
4.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철강수출국, 교역 규모 확대 속 고급강 수출 경쟁 격화

- 전체 철강 수출은 중국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이 최근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2015년 4.6억톤 기록
- 세계 철강 교역 내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가격경쟁 우위 품목인 봉강 등 저가재 물량 밀어내기과 기술 개발에 따른 자동차 강판, 합금강 등 고급강 확대라는 이중 공세 양상

○ 글로벌 7대 철강수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정부 정책 및 교역여건 변화, 상·하공정 설비투자, 기술발전 등에 따라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

- 중국의 수출은 2015년 봉강, 합금강(alloy flat), 선재 순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 품목과 고부가가치 강재 위주로 편성
- 일본의 열연, 반제품 등 소재 수출은 해외 설비투자에 따른 현지의 최종제품 생산 증가로 늘어났으나, 아연도금 강판은 오히려 3대 수출품에서 도태
- 한국은 냉연, 아연도금 강판 등 자동차용 고급강이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주력 수출품목 순위 변화					
	2005			2015		
중국	①반제품	②열연	③선재	①봉강	②alloy flat	③선재
일본	열연	아연도금	반제품	열연	반제품	alloy flat
한국	열연	냉연	아연도금	열연	냉연	아연도금
러시아	반제품	열연	냉연	반제품	열연	냉연
우크라이나	반제품	중후판	열연	반제품	열연	철근
터키	반제품	철근	강관	철근	형강	열연
미국	열연	강관	아연도금	아연도금	열연	강관
EU(28)	열연	아연도금	반제품	열연	아연도금	냉연

○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수출품의 비교우위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은 일부 품목의 경쟁우위가 압도적으로 높음

- 유럽, 미국은 2015년 비교우위 지수가 1 내외로 전 품목에 유사한 비교우위를 보이나, 중국은 봉강, 합금강, 기타도금 등의 비교우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열연, 냉연, 아연도금 등은 2015년 일본, 한국, 미국에서 경쟁우위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합금강 비교우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

○ 글로벌 7대 철강수출국이 냉연, 아연도금 등 고급강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주력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합금강(alloy flat) 교역에 집중적인 모니터링 필요

- 글로벌 교역품목 변화로 한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내수시장 잠식 등 영향이 우려되므로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1. 세계 철강 교역품목 전환

□ 주요 철강수출국, 교역규모 확대 속 고급강 수출 경쟁 격화

○ 글로벌 철강 수출은 중국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이 최근 2~3년래 쏟아져 나오면서 2015년 4.6억톤 기록

- 한·중·일 3국과 터키의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과잉과 해외 하공정 설비투자에 힘입은 소재 수출 등으로 증가
 - 중국의 수출은 '14년 전년 대비 51.0% 증가한 9,291만톤, '15년 20.1% 증가한 1.12억톤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교역규모 확대를 견인
-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의 수출은 재정위기와 크림반도를 둘러싼 정정불안, 경제제재 등으로 오히려 위축

○ 주력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반제품은 감소했으나 봉강, 합금강, 도금강판 등의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

- 교역 양상은 중국의 가격경쟁 우위 품목인 저가재 밀어내기와 기술 개발에 따른 자동차 강판, 합금강 등 고급강 확대라는 이중 공세로 변화
 - 봉강 교역은 저가재 공세로 2005년 1,479만톤에서 2015년 4,623만톤으로 3.1배 확대, 총수출 대비 비중도 동기간 4.5%에서 10.7%로 확대
 - 합금강 비중은 중국, 일본, 한국의 수출 증가로 3.0%에서 8.1%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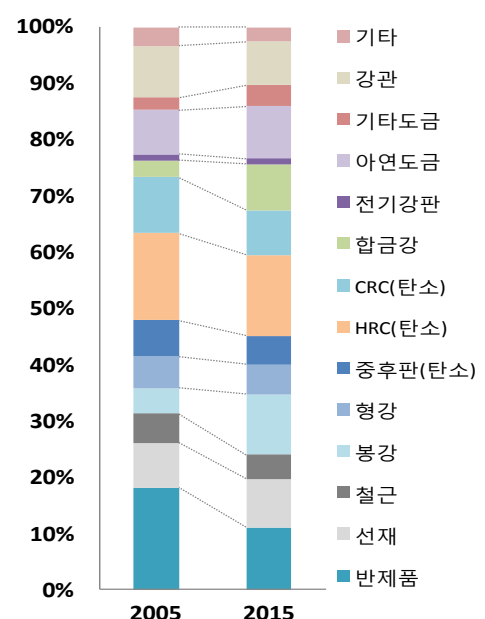
〈글로벌 철강수출 실적〉

순위 (15)	수출국	수출실적(백만톤)		규모(%) (B/A)
		'05(A)	'15(B)	
1	중국	27.4	111.6	407
2	일본	32.0	40.8	128
3	EU(28)*	35.4	33.8	95
4	한국	16.1	31.2	194
5	러시아	30.9	29.7	96
6	우크라이나	27.3	17.7	65
7	터키	12.3	15.0	122
8	브라질	12.6	13.7	109
9	대만	9.2	11.2	122
10	미국	9.4	10.0	106
Top 10 합계		212.6	314.7	148
글로벌 전체		364.8	462.4	127

자료: worldsteel

* : EU 역내 수출실적 제외

〈세계 철강제품별 수출〉



자료: ISSB

2. Top 7 철강수출국, 주력 수출품목 변화

□ 글로벌 7대 철강수출국의 주력 품목은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 글로벌 교역여건, 철강사의 상·하공정 설비투자,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

〈주요국 주력 철강 수출품목〉

	주력 수출품목 순위 변화					
	2005			2015		
중국	①반제품	②열연	③선재	①봉강	②alloy flat	③선재
일본	열연	아연도금	반제품	열연	반제품	alloy flat
한국	열연	냉연	아연도금	열연	냉연	아연도금
러시아	반제품	열연	냉연	반제품	열연	냉연
우크라이나	반제품	중후판	열연	반제품	열연	철근
터키	반제품	철근	강관	철근	형강	열연
미국	열연	강관	아연도금	아연도금	열연	강관
EU(28)	열연	아연도금	반제품	열연	아연도금	냉연

주: 1) 열연, 냉연, 후판 : 탄소강, 2) alloy flat=중후판, HRC, CRC, 3) 제품 순위는 규모 기준
자료: ISSB

① 중국

○ 2015년 주력 수출품목은 봉강, 아연도금, 합금강(alloy flat) 등 가격 경쟁력 우위 품목과 고부가가치 강재로 바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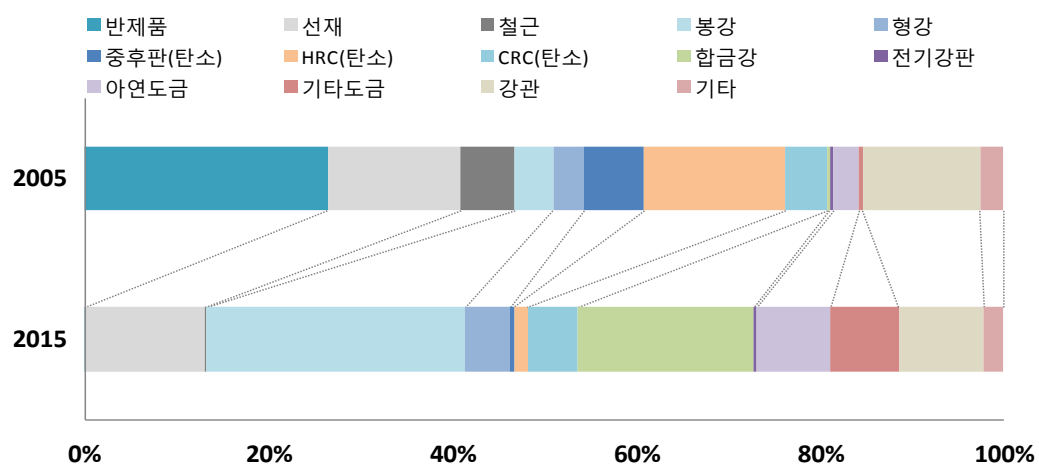
- 봉강, 선재, 형강 등 봉형강류 수출은 설비 확충에 따른 공급과잉 심화로 저가재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급증
 - 봉형강류 수출은 경기부양을 위한 RMB 4조 투자(2010년)에 힘입은 건설용 생산설비 확대로 '12~'15년에 급격하게 증가
 - 봉강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9.2% 증가해 2015년 3,142만톤 기록,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5년 4.2%에서 2015년 28.2%로 상승해 1위 수출품으로 부상
- 냉연, 아연도금 강판은 해외 선진기술과 외자 도입에 따른 품질 향상 및 독자 기술개발 강화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주력 수출품목에 신규 편입

- 냉연과 아연도금 강판 수출은 '05~'15년 각각 연평균 17.2%, 27.9% 증가, 특히, 아연도금 강판은 2015년 892만톤을 기록해 5대 수출품으로 부상
- 합금강(alloy flat)은 고수익 창출, 보론과 크롬 함유 비율 조정을 통한 증치세 환급 및 통상마찰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3대 수출품에 합류
- 합금강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8.1% 급증해 2015년 2,130만톤,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5년 0.2%에서 2015년 19.1%로 상승

○ 반면, 저부가가치 강재인 반제품 및 열연, 후판 등의 수출은 주력 품목에서 서서히 도태

- 반제품 수출은 2005년 724만톤에서 2015년 8천톤으로 감소했으며, 총수출 대비 비중도 동기간 26.4%에서 0.1%로 대폭 축소
- 열연과 후판 수출도 일본, 한국 등의 하공정 연계수요 확보, 설비능력 확충에 따른 경쟁, 글로벌 조선 경기 악화 등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국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자료: ISSB

주: 합금강 = 중후판, HRC, CRC 기준

○ 중국의 수출품목이 바뀐 데에는 정부의 증치세 환급, 수출확대장려금, 수출관세 부과 등 인센티브 제도 변경이 주원인으로 작용

- 냉연, 도금강판, 합금강 등은 2010년 7월 이후 증치세 환급(9~13%) 지원이 지속되면서 수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
- 반면, 철근 등 일부 저부가가치 품목은 2009년 이후 수출관세(10~25%)를 부과하면서 '14~'15년 수출이 줄어들었음
- 한편,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붕강 등의 수출 증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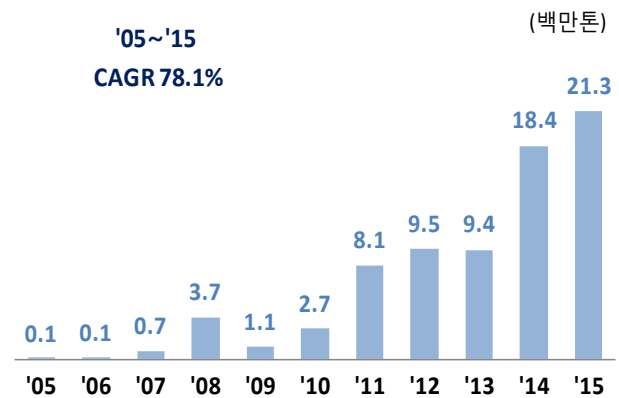
환급 폐지('15. 1. 1.) 효과는 크롬 함유로 대체되면서 미미

<중국 증치세 환급 및 수출관세>

	품목	증치세환급	수출관세
'08.12	판재류		5%→0%
'09. 4	STS, CR	5%→13%	
'09. 6	대형형강	0%→5%	
	HR, 후판	0%→10%	10%→5%
'09. 7	H beam, Channels		
'10. 7	HR, 후판	9%→0%	
'15. 1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봉강, 선재, 후판·열연박판)	폐지	

자료: WSD

<중국 합금강 수출 추이>



자료: ISSB 주: 합금강=중후판, HRC, CRC

○ '15~'16년 중국 철강재 수출은 글로벌 전반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로 타격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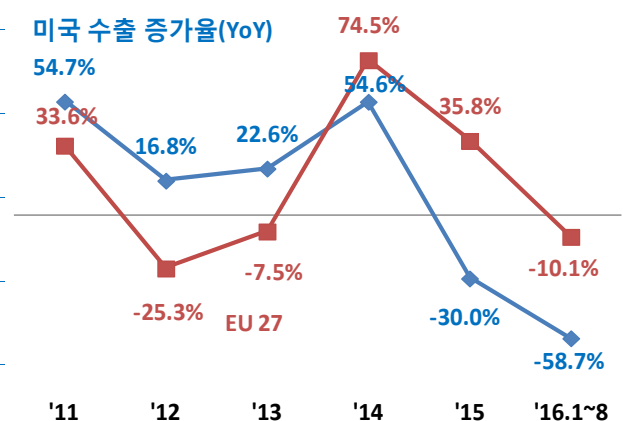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중국 다수의 철강재에 고율의 AD/CVD 부과 중이며, 수입규제 강화 지속
- 중국의 미국향 수출은 열연, 냉연, 도금 등에 대한 AD/CVD 부과로 '15년 30% 줄어든 데 이어, '16년 1~8월에도 58.7% 감소, 유럽향 수출도 '16년 1~8월에 10.1% 마이너스 성장 전환
- 수입규제 품목이 초기에 봉형강류에서 열연, 냉연, 도금 등 판재류로 점차 확대되면서 전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본격화

<미국/유럽 판재류 수입규제 현황>

	미국	EU 28
후판	AD 최대 128.59%	AD 조사중
열연	AD 최대 90.83%	AD, CVD 조사중
냉연	AD 265.79% CVD 256.44%	AD 최대 22.1%
도금	AD 209.97% CVD 최대 241.07%	
전기 강판	AD 407.52% CVD 158.88%	AD 36.6% 혹은 최저가 이하 차액

자료: 미국 상무부, EU 위원회 등 종합(2016)

<중국의 미국/유럽향 수출 추이>



자료: Mysteel

② 일본

○ 열연, 반제품 등 소재 수출은 해외 설비투자에 따른 현지의 최종제품 생산 증가로 늘어났으나, 아연도금 강판은 오히려 3대 수출품에서 도태

- 일본은 2000년대 자동차 등 수요산업 진출 지역에 하공정 설비투자와 해외 합작투자(JV)를 늘리면서 소재 수출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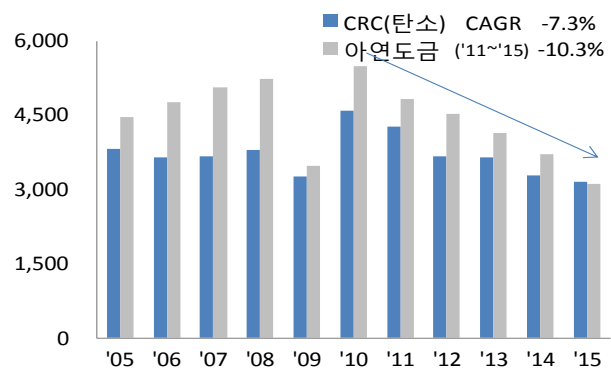
· 열연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8% 증가해 2015년 1,331만톤 기록,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5년 19.5%에서 2015년 32.6%로 크게 확대

- 냉연, 아연도금 강판 수출은 위축되고 있으나, 합금강 수출은 아세안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증대와 무역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 활용으로 확대

· 냉연과 도금강판 수출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총수출 대비 비중이 각각 4.2%p, 6.3%p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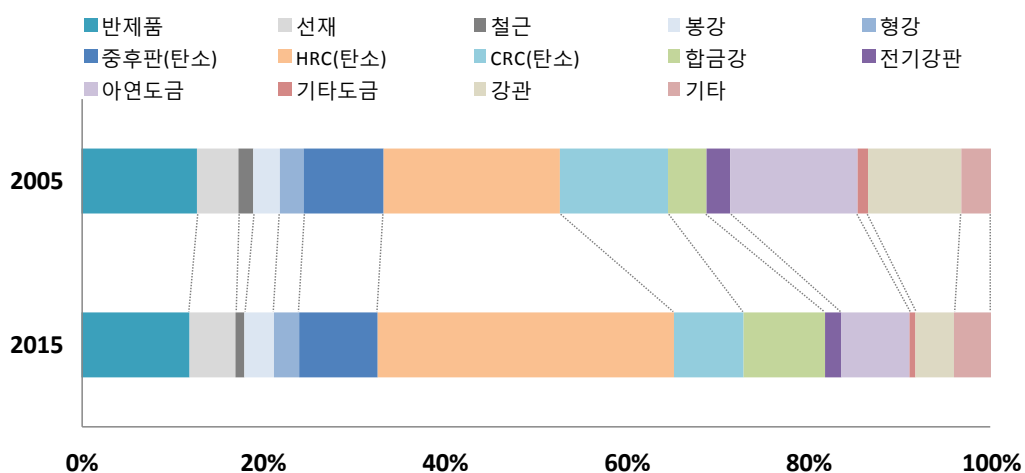
· 반면, 합금강 수출은 연평균 10.6% 증가해 전체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일본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 현지 합작투자를 통한 소재 공급, 기술력 기반의 고급재 수출에 따른 품목 차별화, 그리고 현지 메이커들과 밀접한 관계 등으로 인해, 글로벌 철강가격 하락 및 통상마찰 등 외부여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

<일본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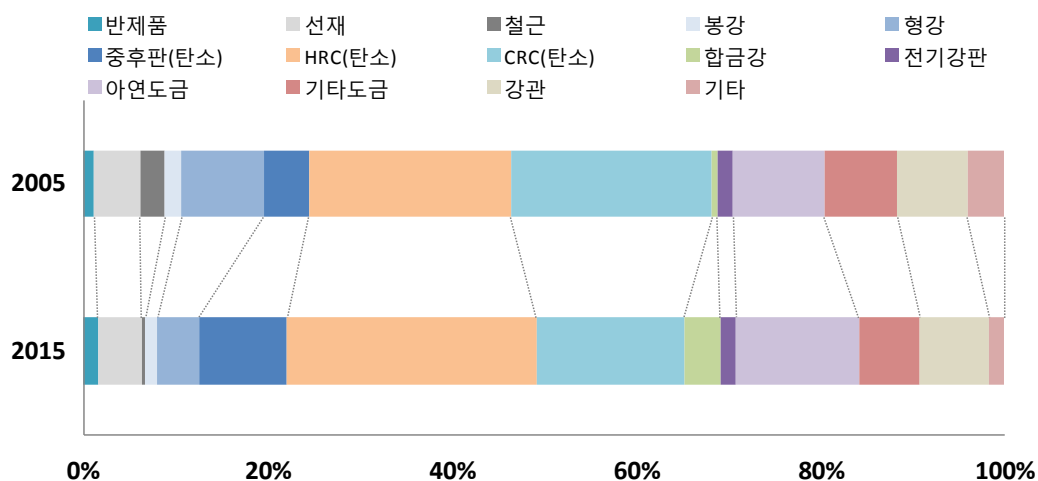
자료: ISSB

주: 합금강 = 중후판, HRC, CRC 기준

③ 한국

- 한국은 냉연, 아연도금 강판 등 자동차용 고급강이 10년 동안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 열연, 아연도금 강판 수출은 '05~'15년 연평균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
 - 열연 수출은 멕시코, ASEAN 등 하공정 설비 가동에 따른 소재 공급으로 연평균 9.1% 증가해 비중도 '05년 21.9%에서 '15년 27.1%로 확대
 - 냉연은 동기간 연평균 3.5% 증가에 그쳤으나, 아연도금은 아세안, 중국, 인도, 중동 등 신흥국 수요 견인으로 연평균 10.1% 늘어나 총수출 대비 비중도 9.9%에서 13.4%로 증가
 - 수출 다변화 노력에도 열연, 냉연, 아연도금 강판 등 주력 3대 품목의 비중이 53.7%에서 56.5%로 확대
- 합금강, 중후판, 아연도금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철근, 형강 등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기록
 - 합금강 수출은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세, 중후판 수출도 생산능력 확대로 증가
 - 합금강 수출은 '15년 123만톤으로 미미하나 '05~'15년 연평균 31.2% 증가, 중후판은 세계 조선시황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생산능력 확대로 동기간 연평균 14.1% 늘어나 비중도 4.9%에서 9.5%로 확대
 - 철근, 형강 등 봉형강류는 중국산 품질 향상과 저가재 공세로 주력 수출 시장을 내주면서 총수출 대비 비중 축소

〈한국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자료: IS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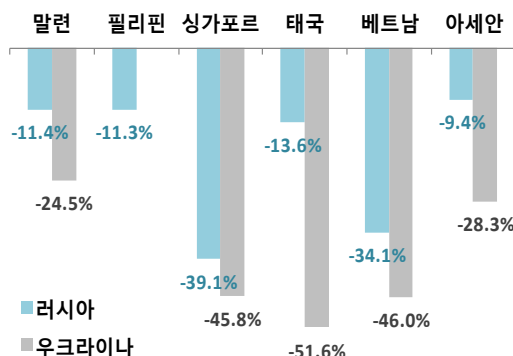
주: 합금강 = 중후판, HRC, CRC 기준

④ 러시아·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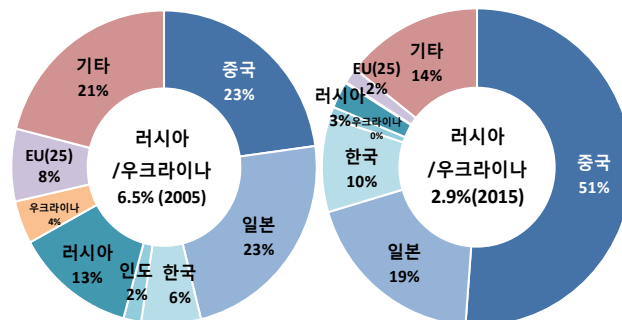
○ 두 국가는 CIS, 동유럽, ASEAN 등 인접 시장을 기반으로 교역강국으로 입지를 다졌으나, 최근 중국에 시장을 빼앗기면서 과거 위상 흔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수출국 순위에서 2005년에 각각 2, 4위였으나, 2015년 5, 6위로 하락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철강 수출은 인접 시장인 EU의 재정위기와 크림반도를 둘러싼 정정불안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지난 5년간 타격이 큼
- 또한 아세안 시장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産 철강재가 중국산으로 대체 되면서 '05~'15년 각각 연평균 9.4%, 28.3% 감소
- 러시아産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30% 이상 줄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産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전 아세안에서 크게 감소해 시장 점유율 하락

〈아세안 수입 증감률('05~'15)〉



〈아세안 6개국 수입재 점유율〉



자료: SEASI

주: 아세안 6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반제품 강국으로 '05~'15년 반제품 수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

- 러시아 반제품 수출은 '15년 1,531만톤으로 세계 1위 규모이며,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5년 45.3%에서 2015년 51.5%로 늘어나면서 강국 위상을 유지
- 다만, 반제품 수출 규모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소재 공급 확대로 10년 동안 연평균 0.9% 증가하는데 그치며 정체 양상
- 열연, 냉연은 3대 수출품목에 해당되나 '05~'15년 각각 연평균 1.4%, 5.3% 수출이 감소하고 합금강은 연평균 6.4% 증가해 변화 조짐
- 우크라이나의 최대 품목도 반제품이나, 지난 10년 동안 수출량이 축소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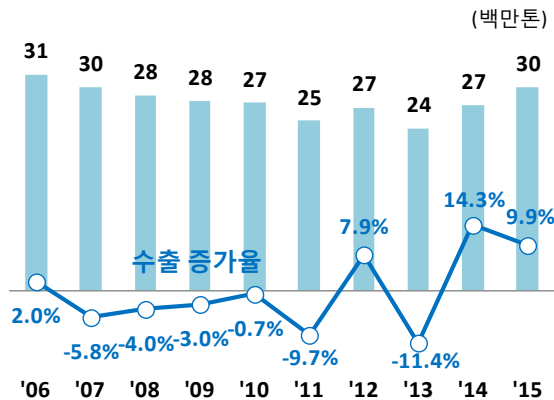
반제품 수출 강국에서 후퇴하는 모습

- 반제품 다음으로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2005년 후판에서 2015년 현재 열연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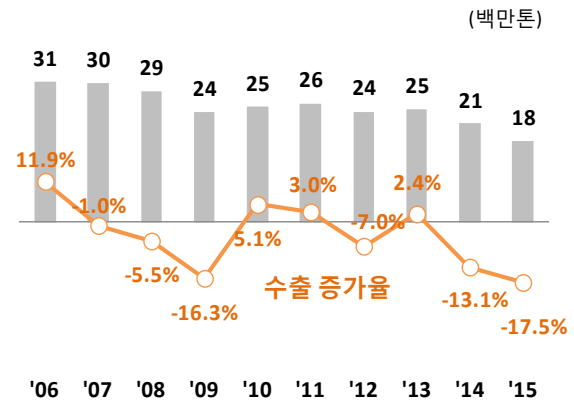
○ 러시아 철강 수출은 크림반도 병합('14.3)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에도 회복세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내전 심화 등의 위기로 감소 지속

- 러시아 수출은 2013년 2,364만톤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위기 발발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급감
- 우크라이나 철강 수출은 향후에도 경쟁력 저하로 회복되는데 시간 소요 예상

〈러시아 철강 수출 추이〉



〈우크라이나 철강 수출 추이〉



자료: ISSB

⑤ 터키

○ 터키는 동유럽, CIS, 중동, 아프리카 등 인접 시장에 열연, 철근, 형강 등 건설용 강재 공급을 늘리면서 주력 수출품도 변화

- 봉형강류 수출 비중은 중동, 아프리카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용 수요 증가로 2005년 62.4%에서 2015년 70.2%로 상승
 - 전통적 시장인 유럽으로도 철근, 봉강, 형강 등을 수출했으나,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2010년 이후 감소
- 판재류 수출은 Habas 열연 신설비 가동 등에 따른 생산 증가로 급증
 - 열연은 '05~'15년에 연평균 21.8% 늘어나고 중후판도 동기간 15.7% 증가해 총수출 대비 두 제품 비중은 2.3%에서 12.6%로 증가
- 반면, 냉연, 아연도금 등 고부가가치 강재 수출은 정세 상황이라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⑥ 미국

- 주력 수출품목은 10년 동안 아연도금 강판과 강관으로 유지되는 등 변화가 덜하며, 경쟁 격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입 규제 강화
 - 아연도금 강판은 멕시코향 수출의 급증으로 '05~'15년 연평균 5.6% 증가해 열연을 제치고 2015년 처음으로 1위 수출 품목으로 부상
 - 멕시코 아연도금 수요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면서 GM, 닛산, VW, 도요타 등의 신규공장 가동 및 증설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
 - 아연도금 강판 수출 점유율은 2005년 9.6%에서 2015년 15.7%로 증가
 - 반면, 열연 수출은 2008년 216만톤을 정점으로 2015년 149만톤까지 하락하면서 2위 수출 품목으로 강등
 - 열연은 동북아 3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세,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5년 20.3%에서 2015년 15.1%로 오히려 하락
 - 냉연 수출은 미국 남부 물량 제한 및 멕시코 자국 철강사 증설로 소폭 증가
 - 강관 수출은 셰일가스 붐 등에 따른 에너지용 수요 확대로 2012년 2,087만톤으로 정점을 보인 후 저유가 지속으로 3년 연속 감소

⑦ EU(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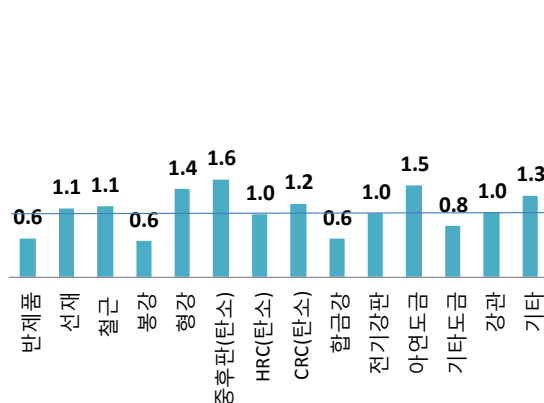
- 수출품목은 전체 철강재가 10% 내외 비중으로 고르게 분포해 품목 다변화 뚜렷,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
 - 열연, 아연도금 강판 등은 주력 품목으로 2005년 이후 1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아연도금 강판 수출은 Daimler, BMW 등 주요 자동차사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연계 판매로 '05~'15년 연평균 3% 증가해 두 번째로 성장성이 높음
 - 철근, 선재 등 건설용 수출은 인접 대륙인 아프리카의 건설경기 호조 및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소폭 확대
 - 철근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6% 늘어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며,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05년 3.3%에서 2015년 4.8%로 확대
 - 강관 수출은 고부가가치 에너지용 강재 시장을 한·중·일 3국에 내주면서 2005년 9.8%에서 2015년 7.9%로 감소

3. 주요국 철강 제품별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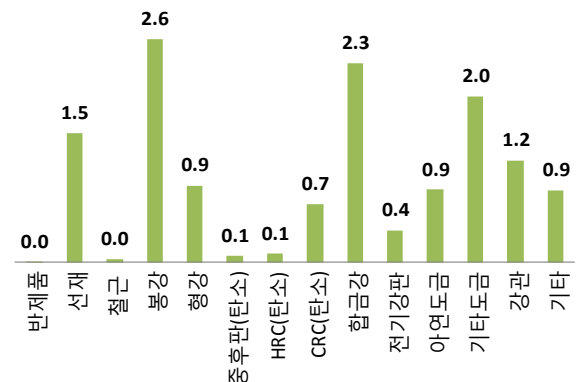
□ 각국 주력 철강 교역품목 변화에 따른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분석

-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수출품의 비교우위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은 일부 품목의 경쟁우위가 압도적으로 높음
 - 유럽, 미국 수출품목들은 2015년 비교우위 지수가 1 내외로 전 품목에 대해 유사한 경쟁력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봉강, 합금강, 기타도금 등 일부 품목의 비교우위 지수가 2를 상회
 - 러시아·우크라이나 반제품의 지수는 각각 4.6, 4.0으로 일부 품목에 경쟁우위
 - 반제품은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봉강은 중국에서 비교우위 두드러짐

〈유럽 제품별 비교우위 지수('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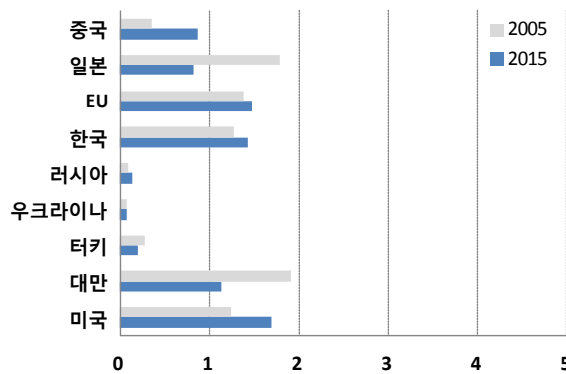
〈중국 제품별 비교우위 지수('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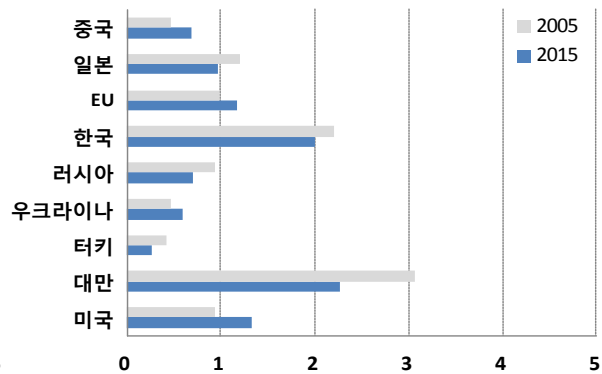
자료: ISSB

- 판재류에서 열연, 냉연, 아연도금 등은 일본, 한국, 미국 등에 경쟁우위가 있으며, 최근 합금강의 비교우위는 중국에서 급상승
 - 열연은 2015년 일본, 한국, 러시아, 대만, 미국 등에서 1보다 크게 나타나 경쟁우위에 있으나, 중국, 터키 등은 경쟁열위
 - 냉연과 도금강판은 유럽, 한국, 대만, 미국이 경쟁우위에 있으며, 일본은 오히려 경쟁열위로 전환되어 주력 수출품목 변화 시사
 - 일본의 경우, 냉연 비교우위 지수는 2005년 1.2에서 2015년 1.0으로 하락, 아연도금도 동기간 1.8에서 0.8로 오히려 경쟁열위로 전환
 - 중국의 합금강 경쟁우위는 2005년 0.1에서 2015년 2.3으로 급등

〈아연도금 수출 비교우위 지수〉



〈냉연 수출 비교우위 지수〉



자료: ISSB

4. 종합 및 시사점

□ 글로벌 7대 철강수출국은 냉연, 아연도금 등 고급강 경쟁 격화 속, 합금강(alloy flat) 교역이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물량공세’와 주요국들의 ‘고급강 확대’로 일부 품목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향후 수출 확대에 어려움 예상

- 중국은 가격 경쟁력 우위인 저가재를 비롯해 기술혁신에 따른 고급강 확대의 이중공세로 글로벌 철강 교역을 주도해 나갈 것임
- 철강사들은 중국 봉강, 합금강의 경쟁우위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정책지원에 따른 교역왜곡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함

○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금강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하고 있어 원인 규명 및 대응 필요

□ 글로벌 교역품목 전환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한국 내수 시장 잠식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품목별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봉강, 형강, 아연도 강판 등의 수입은 '05~'15년 각각 연평균 13.0%, 8.7%, 6.0% 늘어나 수입재로 인한 내수 잠식 불가피
- 특히, 중국산 봉강, 형강, 아연도 강판 수입은 동기간 각각 연평균 125.2%, 16.8%, 223.1% 증가해 중국 수출 확대 및 품목 전환에 따른 영향 큼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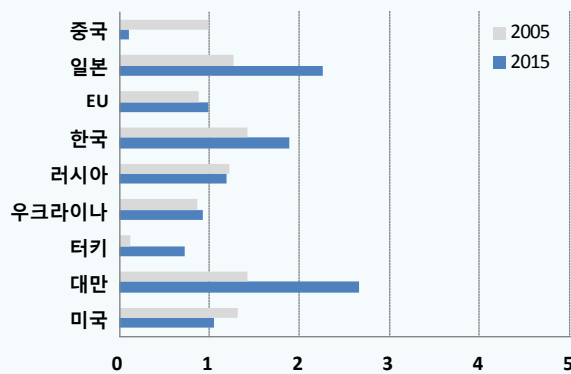
- RCA는 품목별 시장점유율과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동태적 비교우위지표
 - 특정국가(k국)의 특정품목(i품목) 수출비중이 전세계의 특정품목 수출비중보다 높은 경우 k국은 I 품목에 특화되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분석
 - 해당국가 I 품목의 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으며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

$$RCA_{k,i} = \frac{x_{k,i} / \sum_i x_{k,i}}{x_{w,i} / \sum_i x_{w,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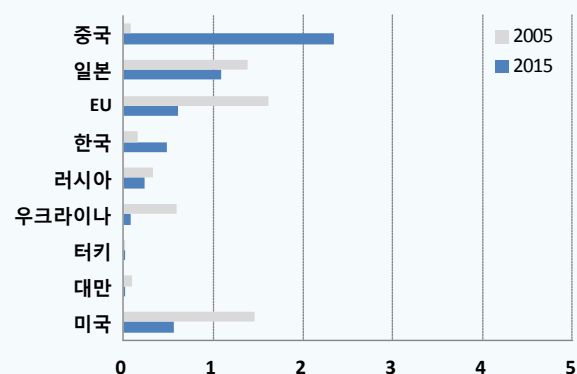
$x_{k,i}$: k국의 i 특정제품 수출, $x_{w,i}$: 세계의 i 특정제품 수출

- TOP7 국가의 철강제품 수출입자료는 World Steel Export(ISSB)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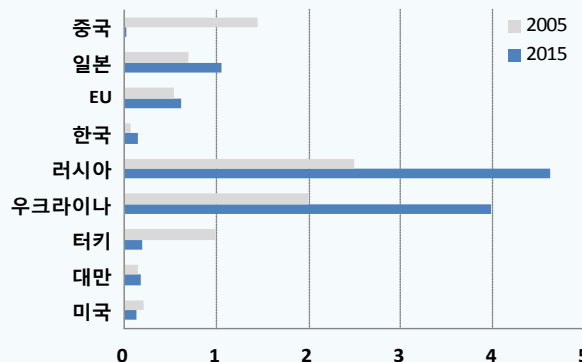
〈열연 수출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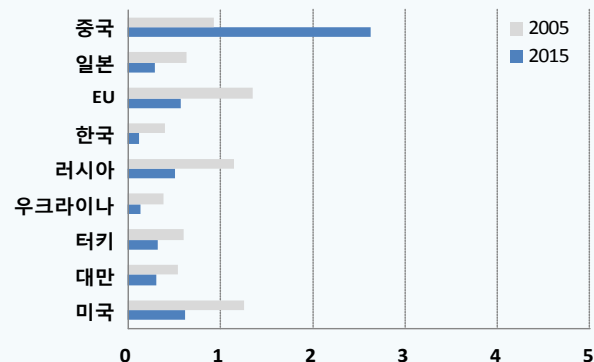
〈합금강 수출 비교우위〉



〈반제품 수출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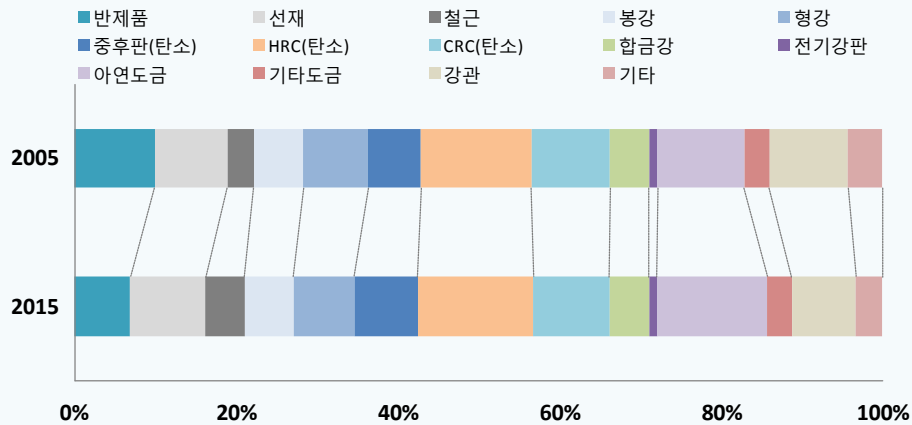


〈봉강 수출 비교우위〉



자료: IS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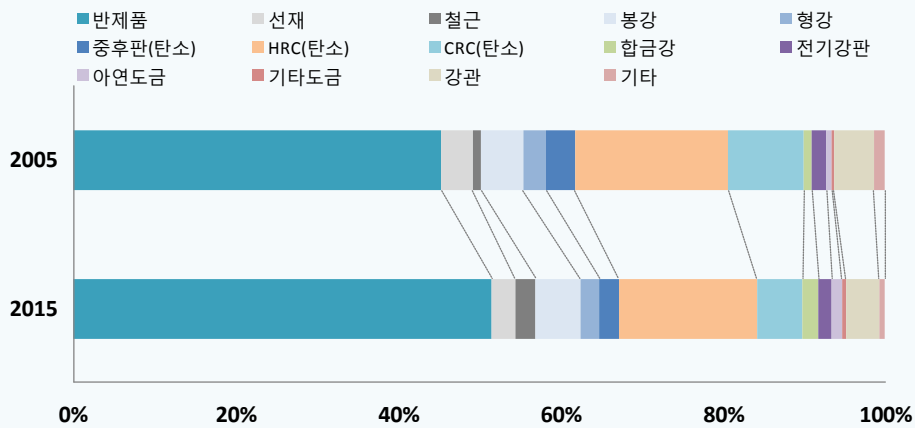
〈유럽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자료: ISSB

주: 합금강 = 중후판, HRC, CRC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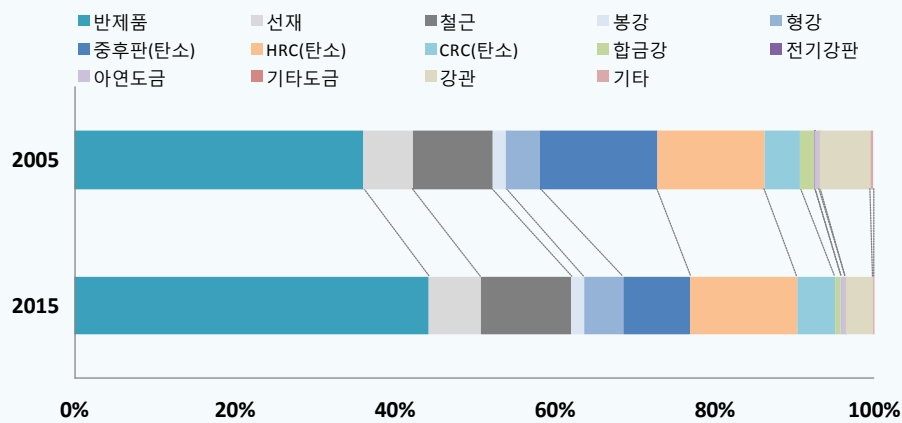
〈러시아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자료: ISSB

주: 합금강 = 중후판, HRC, CRC 기준

〈우크라이나 철강 제품별 수출 비중〉



자료: ISSB

주: 합금강 = 중후판, HRC, CRC 기준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김주환, “한중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산업포커스, 산업연구원, 2013.10

남시경, “한·중 철강교역구조 및 철강 제품별 경쟁력 분석”, POSRI경영경제연구, 포스코경영연구원, 2007.1

심상형, “보산-무한강철, 중국 최대 철강 M&A의 배경과 전망”,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7

정규철,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15.5

추지미, “한중일 철강수출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7

China Metallurgical Newsletter, China Metallurgical Information & Standardization Institute, 2016년 2월 15일

de Carvalho, A. and N. Sekiquchi, “The structure of steel exports: changes in specialization and the role of innovatio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2015/07, Paris: OECD Publishing

“Excess Capacity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Steel Sector”, Brussels: OECD, 2016.4

ISSB, *World Steel Export*, 각호

ISSB, *World Steel Export: Stainless High Speed and Other Alloy*, 각호

worldsteel, *Steel statistical yearbook*, 각호

worldsteel, *World Steel in Figures*, 각호

[홈페이지]

Mysteel (<http://www.mysteel.com>)